

편집 및 발행인 : 김종덕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780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Contents

▶ 유럽 물류 시장 동향

- 네덜란드 BOZ, 국가 사이버 보안 플랫폼 구축으로
항만 보안 강화

▶ 중동 물류 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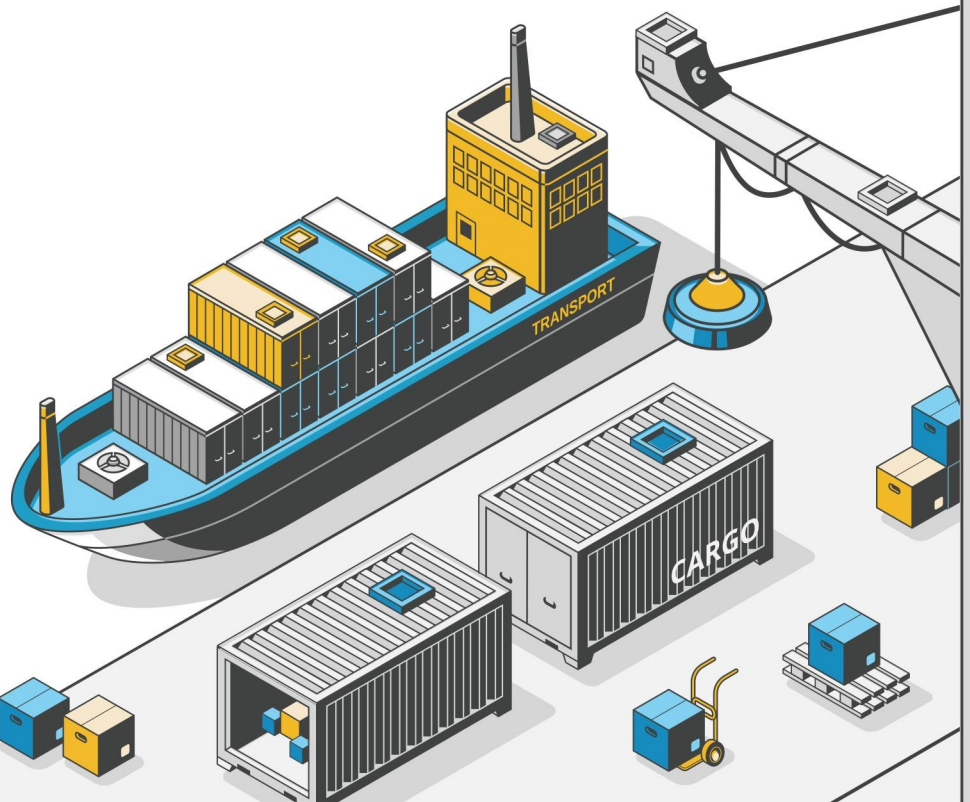
- CMA CGM, AD Ports, 칼리파항에 컨테이너
터미널 개장

▶ 미주·중남미 물류 시장 동향

- Yellow社 시설 매각에 따른 美 소량 트럭
운송업계 재편 가속화 전망
- 12월 아시아~美 컨테이너 스팟운임, '21년 이후
동월 최고치 기록

▶ 공지 사항

-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네덜란드 BOZ, 국가 사이버 보안 플랫폼 구축으로 항만 보안 강화

- ▶ Branche Organisatie Zeehavens(네덜란드 항만산업 기구, 이하 BOZ)는 사이버 보안 플랫폼 구축으로 네덜란드 항만-물류 프로세스 사이버 보안 강화 예정
 - '24년 12월 10일 BOZ는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, 대테러·안보조정기구(NCTV)와 협력해 네덜란드 항만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구축함
 - 이 플랫폼은 로테르담 항, 무르다이크 항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험 분석 및 관리하는 FERM을 국가 사이버 보안 플랫폼으로 전환한 것으로 '25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임
 - 이에 FERM은 BOZ에 포함된 로테르담 항, 암스테르담 항, 무르다이크 항, 흐로닝언 항, 북해 항(벨기에-네덜란드 국경항) 대상 보안 강화 전략을 구축하고, 관련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
 - FERM 이사 Evelien Bras는 항만 간 위험 정보 교환을 통해 항만-물류 프로세스를 보호하고 사이버 회복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함

네덜란드 BOZ, 국가 사이버 보안 플랫폼 구축



자료: <https://www.porttechnolog> (검색일: 2024.12.18.)

- ▶ 네덜란드 항만은 적극적인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선진 항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나, 높은 기술 의존도로 인해 최근 사이버 보안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함
 - 유럽의 디지털 관문으로 통하는 네덜란드는 IoT, 빅데이터 등 신기술 수용도가 높으며, 특히 로테르담 항은 최초의 무인 자동화 하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표적인 스마트항만임
 - 그러나 높은 기술 의존도로 인해 최근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으로 나타나며, 실제로 '23년 6월 로테르담 항을 비롯한 암스테르담 항, 흐로닝언 항은 DDoS 공격으로 인해 웹사이트 운영 중단 사고가 발생함

- 특히 로테르담항은 유럽 최대 항이므로 사이버 보안 공격으로 인한 운영 중단 시 경제적, 물리적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

➤ 점차 항만 및 물류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조직화, 지능화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유연한 대응 방안의 구축이 필요

- 최근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항만·물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복잡한 기술을 이용한 공격이 나타나고 있음

- 이에 대해 로테르담 항 CEO Boudwijn Siemons는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항만의 회복력 강화,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함

➤ FERM 플랫폼 구축은 항만 간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물류 시스템의 안정성, 효율성 향상으로 네덜란드 항만경쟁력 향상 기대

Yellow社 시설 매각에 따른 美 소형 트럭 운송업계 재편 가속화 전망

- ▶ '23년 파산한 Yellow社의 12개 터미널이 최근 2개의 소형 트럭 운송회사에 1억 9,250만 달러에 매각
 - 매각된 12개 터미널 중 11개는 북미 소량 트럭 운송(Less-Than-Truckload)업계 4위인 Estes Express Lines에 매각되었는데, 美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까지 7개 시설 및 4개 임대시설이며 총 1억 4,250만 달러에 매각될 예정임
 - 북미 화물트럭운송업계 5위인 R+L은 뉴욕 Maybrook 터미널을 5,000만 달러에 인수할 예정인데, 이 터미널은 304개의 게이트를 가진 Yellow社의 주요 부지 중 하나로 美 북동부 지역의 화물트럭 네트워크 중심 거점임
 - 두 회사는 법원 경매 절차를 우회해 Yellow社로부터 직접 터미널을 인수했으며 특히, Estes Express Lines는 현재까지 50개 터미널을 인수해 Yellow社 붕괴 이후 최대 수혜자로 부상함
 - 지난 12월10일 美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공개한 Yellow社 매각 세부 사항에 따르면, 이번 매각 외에도 경매 대상 시설이 약 100개가 남아있으며 입찰 마감일은 '25년 1월 6월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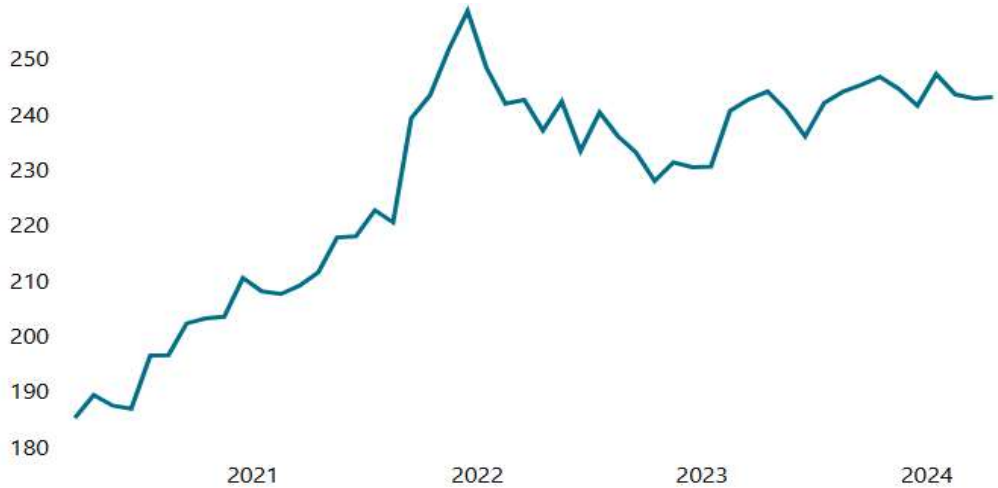
Yellow社 파산에 따른 미국 소형트럭운송시장 재편



자료: www.usatoday.com (검색일: 2024.12.12.)

- ▶ 내년 미국 내 화물 수요 증가 예상으로 인한 트럭 서비스 증가 기대와 더불어 이번 매각으로 소형 트럭 운송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
 - 현재 북미 시장 내 소형트럭운송서비스 공급업체 매출 순위는 FedEx Freight, Old Dominion Freight Line, XPO, Estes Express Lines, R+L 순임
 - 현재 북미 시장 1위 업체인 FedEx Freight는 FedEx는 자회사 유지 혹은 분사 여부를 평가 중이며, 올해 말까지 내부적으로 평가를 완료할 계획임
 - 지금까지 Yellow社の 터미널은 Estes Express Lines 50개, Saia와 XPO 각각 29개, Knight-Swift Transportation 25개, R+L 8개가 인수되었으며, 긍정적인 시장 전망에 힘입어 향후 기업들의 사업전략에 따른 시설 매입 여부가 주목됨

미국 소형트럭운송 생산자 가격지수



자료: www.joc.com(검색일: 2024.12.12.)

참고자료: <https://www.joc.com>, <https://www.usatoday.com> (검색일: 2024.12.12)

12월 아시아~美 컨테이너 스팟운임, '21년 이후 동월 최고치 기록

- 美 동부 항만파업 가능성과 관세 인상 예고, 이른 춘절로 인한 연휴 전 물량처리로 12월 아시아~美 컨테이너 스팟운임이 '21년 이후 역대 12월 중 최고치 기록
 - 12월은 연말연시에 필요한 제품을 연중에 미리 주문해 재고를 완충하였기에 전통적으로 환태평양 무역 규모가 작은 달에 해당함
 - 그러나 아시아~美 서안 스팟운임이 11월 말 FEU당 2,500달러에서 12월 17일 기준 4,000달러로 인상됐으며, 美 동안 스팟운임은 4,367달러에서 6,000달러 중반으로 급등하면서 '21년 이후 역대 12월 중 아시아~美 컨테이너 스팟운임 최고치를 기록함
 - 그 원인으로 1월 15일 미 동부 항만파업 가능성과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시 주요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량 선제 확보, 1월 말 이른 춘절로 인한 연휴 전 물량처리를 꼽음
 - S&P Global Platts에 따르면 12월 스팟운임이 역대 가장 높았던 시점은 팬데믹 여파에서 회복세로 돌아선 '21년 12월 중순으로 아시아~美 서안 8,760달러, 동안 10,300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

아시아~美 연안 컨테이너 스팟 운임 상승 추이

Asia-US container spot rates ending year elevated
Platts container rate North Asia to US Coasts USD per FEU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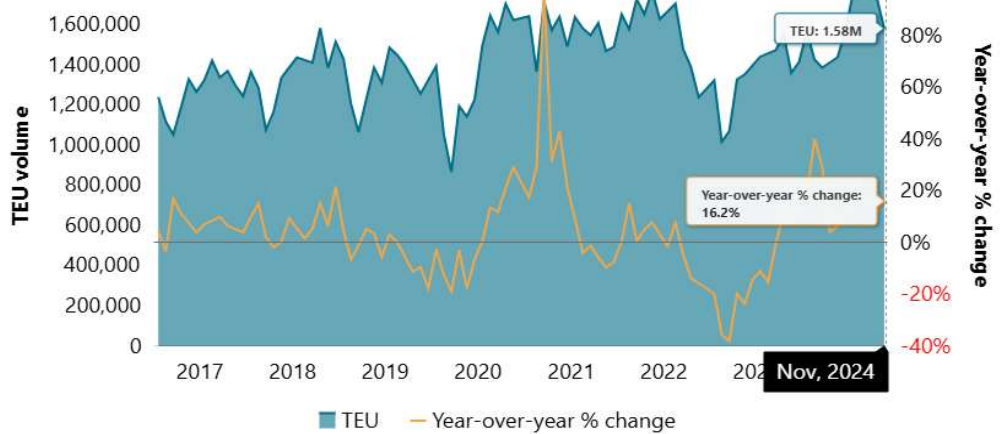
자료: Source: Platts, S&P Global (검색일: 2024.12.19.)

- 美 제조업체는 항만파업으로 인한 혼란과 관세로 인한 비용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핵심부품과 원자재 등을 비축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봄까지 수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
 - 공급망 분석기업 GEP가 전 세계 27,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북미 제조업체의 구매 활동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
 - 미국소매협회(National Retail Federation, NRF)와 Hackett Associates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미국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12월 14.3%, 1월 12.0% 증가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
 - 실제 美 항만은 지난 10월 전년 대비 9.3% 증가한 225만 TEU를 처리해 올 12월에는 전년

대비 14.3% 증가한 214만 TEU, 내년 1월은 12% 증가한 220만 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
 - NRF는 내년 봄까지 '컨' 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, 이는 중국산 '컨' 물량이 가장 많았던 '18년 4분기와 '24년 3분기를 근거로 두 시기 모두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던 시점과 일치한다고 지적함

관세 부과 및 美 동부 항만파업 위협으로 아시아발 美 '컨' 수입 확대

Tariff, strike fears propel US imports from Asia



자료: PIERS, S&P Global (검색일: 2024.12.19.)

- ▶ 내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무역 비효율성으로 단기적으로는 해상 운임 상승,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유발 가능성 高
 - 업계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주요국 관세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항 대신 환적, 멕시코·베트남 등 우회국 거점 활용, 생산·조립 거점 다각화 등으로 무역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
 - 특히 이러한 무역 비효율성은 홍해 사태로 인한 우회와 유사하게 일부 경로의 해상운송 용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해 컨테이너 수요와 공급 간 일시적인 불균형을 발생하게 함
 -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해상 운임의 상승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른 운송 지연, 물류비 증가,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

참고자료: <https://www.freightwaves.com>, <https://www.wsj.com/> (검색일: 2024.12.17.)

CMA CGM, AD Ports, 칼리파 항에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

- ▶ 아부다비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인 CMA 칼리파 항이 12월 12일 공식 개장 후 운영 개시
 - 새롭게 개장한 컨테이너 터미널은 8억 4,500만 달러 규모로 CMA Terminals(지분 70%)와 Abu Dhabi Port(지분 30%)의 합작 투자로 운영될 예정임
 - CMA 터미널 칼리파 항 준공식은 Sheikh Khaled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자이자 아부다비 집행위원회 의장이 주관했으며, Mohamed Juma Al Shamisi Abu Dhabi Ports(AD Port) CEO와 Rodolphe Saade CMA CGM 그룹 회장 외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함

CMA 터미널 칼리파 항 준공 현장



자료: <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> (검색일: 2024.12.16.)

- ▶ 본 터미널에는 최첨단 STS(Ship to Shore) 크레인 8대와 e-RTG(Electric Rubber Tired Gantry) 크레인 20대가 배치되어 터미널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
 - 시설의 추가로 칼리파 항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이 23% 증가해 약 1,000만 TEU에 달하며, 2030년까지 1,500만 TEU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
- ▶ CMA 터미널 칼리파 항의 개장은 CMA CGM의 신규 터미널 프로젝트 1단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
 - 초기 개장 안벽 길이가 800m, 깊이가 18.5m이며, 8대의 STS 크레인이 설치되어 칼리파 항에 총 180만 TEU의 처리용량이 추가됨
 - 새로운 CMA CGM 시설이 개장하면서 칼리파 항은 6.3km²로 확장되었으며, 41개의 항만 크레인, 159개의 야드 크레인, 11.7km의 안벽, 3.8km의 방파제 길이를 갖추게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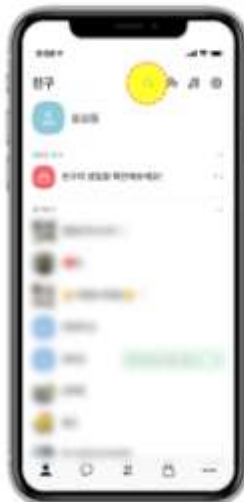
- ▶ 한편, CMA CGM과 AD Port는 UAE와 걸프 지역의 해양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양해각서(MOU)에 서명
 - 이를 통해 CMA CGM 그룹은 Abu Dhabi Maritime Academy 학생의 훈련을 지원하고 주력 자사 선박에 생도를 배치하는 데 이바지할 것임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 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